의안번호	제 3 호

발 의 년 월 일

2022. 7. 6.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강선구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강선구 의원 외 10인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강선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 호

발의연월일 2022년 7월 6일

발 의 자 강선구, 이상우, 홍원표
박중수, 장순관, 임종용
김태금, 김영진,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11인)

찬 성 자

반 대 자

1. 주 문

○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중성 하락으로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과 운송업이 회복하며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석유수출국기구에 속한 주요 산유국들이 충분한 원유 공급을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

○ 정부는 유가는 우리 경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에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용 면세유 대책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농업용 면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중성 하락으로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과 운송업이 회복하며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석유수출국기구에 속한 주요 산유국들이 충분한 원유 공급을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지난달 120달러를 돌파하였음.

○ 국내 유가 또한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이미 넘긴지 오래이며, 경유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리터당 평균 1,403원에서 2,167원으로 50%이상 급격히 상승하였음.

○ 정부는 유가는 우리 경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에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올 초부터 비축유 방출, 기존 유류세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추가 확대하는 등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겐 전혀 무의미한 정책으로 기계화와 시설작물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농업현장에서도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대폭 늘어난 상황임.

○ 지난 2020년 6월 기준 면세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리터당 단가는 각각 592원, 628원, 606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각각 1,495원 1,626원 1,423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최근 2년간 약 104% 폭등하였음.

○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난해 661㎡(200평)당 2만5천원 수준이었던 모내기 대행료가 올해 약 1만 원 가량 상승 되었으며,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과 겹치면서 농가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 됨.

○ 이처럼 농업 분야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면세유가 공급된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

○ 이에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즉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위중성 하락으로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과 운송업이 회복하며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석유수출국기구에 속한 주요 산유국들이 충분한 원유 공급을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지난달 12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유가 또한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긴지 오래이며, 특히 경유의 경우 최근 1년간 리터당 평균 1,403원에서 2,167원으로 약 50%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올 초부터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류세를 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존 유류세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추가 확대하는 등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전혀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현장은 대부분 기계화되고 시설작물재배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에서 유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기준 면세유 휘발유와 경유・등유의 리터당 단가는 각각 592원, 628원, 606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각각 1,495원, 1,626원, 1,423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최근 2년간 약 104%가 폭등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난해 661㎡(200평)당 2만5천원 수준이었던 모내기 대행료가 올해 약 1만 원가량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과 겹치면서 농가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농업 분야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면세유가 공급된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연평균 1,000만 원대에 정체중입니다.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꿋꿋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농업은 항상 뒷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예산군의원 일동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하여 예산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를 도입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와 농업정책 발굴에 앞장서라**

2022. 7.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